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5월 30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30.(월)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5. 29.(일)	담당부서	반도체디스플레이과
담당과장	최우혁 과장(044-203-4270)	담 당 자	차세운 서기관(044-203-4271) 류종민 사무관(044-203-4272)

산업부 장관,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논의로 업계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 시작

- 반도체업계 대상 「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」 개최 -
- 상반기 중 신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발표 추진 -

□ **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**은 5.30일(월) 경기도 이천의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에서 「**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**」를 개최,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, 신정부의 반도체산업정책 방향 등에 관하여 논의함

< 「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」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** : **5.30(월) 10:40~12:00** / 에스케이하이닉스 본사(경기 이천)
* 산업부장관은 회의前 40분간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공장 생산라인(M14) 시찰(10:00~10:40)

○ **참석자**

- (산업부) 장관, 산업정책실장, 소재융합산업정책관,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
- (기업인) 에스케이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원익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
  동진쎄미켐 이준혁 대표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
  심텍 최시돈 대표 코미코 최용하 대표
- (유관기관)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

○ **논의내용** : 반도체업계 주요 현안 및 애로, 반도체산업정책 방향

□ 이 장관은 「**산업전략 원탁회의**」가 "'**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**' 실현을 위한 **산업부 정책혁신의 플랫폼**"이라 하면서,

○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정부 정책도 함께 논의하는 '**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장**'으로 **동 회의를 운영**해나갈 것임을 밝힘

○ 금번 반도체업계와의 1차 회의에 이어, **2차 회의부터는 자동차·배터리·철강·로봇** 등 **다양한 산업**으로 분야를 넓혀 우리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**격의없이 논의**해 나가고,

- 회의 중 제기되는 **업계의 애로사항**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**해결방안을 적극 모색**할 예정이라 함

□ 이 장관은 **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**이나, 우리 **반도체 산업**은 국제적 공급망 불안,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* 등으로 인해 **만만찮은 여건에 직면**해 있다고 평가하면서,

* 미국 : 반도체 시설·연구개발 투자 등에 대한 5년간 520억불의 지원법안 논의
* 일본 :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`21년 추경 6000억엔 편성
* EU : `30년까지 반도체분야에 대한 공공·민간투자 430억유로의 지원법안 논의

○ 우리가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**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**이기에, 향후 반도체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「**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**」 **업종을 반도체**로 결정했다고 설명함

□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**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**, **인력 여건 개선**, **소부장**(소재·부품·장비)**기업 경쟁력 강화** 등을 언급함

○ **세액공제 확대**(공제율 상향 등), **필수 기반 시설**(전력·용수 등) 구축 지원 등 **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**을 요청하였으며, **지자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**,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요청함

○ 전문인력 부족을 **업계 1순위 애로사항**으로 적시하며, **반도체학과**

개설 및 정원확대,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**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**하다고 강조함

○ 국내 **소부장 기업**이 세계적 기업 수준*의 **기술력·인력**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핵심 소부장 품목 연구개발 지원 등을 요청하고, 업계 내 **상생협력 촉진**을 위한 **민관 합동 위원회**의 구축**도 건의함

* 현재 국내기업의 반도체장비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4%에 불과

** '소부장 전문위원회(가칭)'를 구성, 성능평가 지원, 패턴웨이퍼 지원, 수요-공급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등의 상생협력 사업 발굴을 촉진

※반도체업계 애로사례 (반도체협회)

투자	- A社 : 팹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, 산업단지 내 전기용량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전력기반 시설 확보에 어려움 겪는 중 - B社 : 주민 민원제기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과, 전력·용수 등의 기반 시설 구축 공사에 대한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대형 투자프로젝트의 착공도 지연
인력	- C社 : 국제기업, 대기업 등으로 100명 이상의 연구인력이 유출되고 있으며, 이를 보충하기 위한 채용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 인력 수급을 위해 수도권으로 연구개발 시설을 옮기고자 하나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- D社 : 지방 중소중견기업은 채용도 쉽지 않고 이직률이 높아, 직원 채용 후 2~3년 훈련시키면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함
소부장	- E社 : 중소·중견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각각 3개·5개로 제한하여, 기업들이 충분한 기술개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음

□ 이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, **“투자・인력・소부장 생태계”**의 **3가지 요소** 모두 **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**을 역설함

❶ **획기적인 규제개선**과 함께, **설비투자**에 대한 **세제혜택 확대**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,

❷ 반도체 관련 **학부 정원 확대** 등 과감한 인력양성책을 통해 업계의 인력난을 해소, 특히 **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를 집중 지원**토록 하고,

❸ 핵심 **소부장 품목의 국산화** 촉진, **소자-소부장기업간 협력체계** 강화 등을 통해 **상생에 기반한 소부장생태계**를 **구축**할 필요성을 강조함

□ 이 장관은 **올해 상반기 중 신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**할 예정임을 밝히고, 금번 회의에서 들은 **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**될 수 있도록 **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**을 다짐함

○ 아울러, 「**산업전략 원탁회의**」를 통해 업종·분야별로 **산업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**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함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차세운 서기관(☎ 044-203-4271), 류종민 사무관(☎ 044-203-427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